

5. 살아보고 싶은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정조는 왜 수원에 화성을 건축했을까?

1) 아버지에 대한 효심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그 당시 최고의 명당인 수원 화산(현 화성시)에 모시고 그 근처에 수원화성을 건축하여 아버지의 묘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자 함

2) 이상적인 도시에 대한 포부

붕당으로 나뉘어 당쟁이 극심했던 시기. 수원화성 지역에 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포부가 담겨있음.
군사요충지로서도 방어 도시로도 제격



수원화성 vs 화성행궁

1) 수원화성 : 도시를 지키기 위해 쌓은 성벽

2) 화성행궁 : 임금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물던 별궁



5. 살아보고 싶은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수원화성 시설

1) 장안문

장안문은 화성의 사대문 중 북쪽 문으로 수원화성의 정문
장안문은 우진각 지붕(지붕면이 사방으로 경사지게 되어있는 형태)으로
규모가 웅장함



2) 팔달문

화성의 사대문 중 남쪽 문으로 남쪽에서 수원으로 진입하는 곳에 위치
팔달문은 모든 곳으로 통한다는 '사통팔달'에서 비롯한 이름이며
축성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



5. 살아보고 싶은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3) 웅성

성문의 바깥으로 쌓은 반달 모양의 웅성
항아리를 반으로 쪼갠 것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성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4) 홍예문

사람이 통과하는 홍예문은 두께 7.9m로 튼튼함을 자랑하며
이 위에 2층 누각을 올리고 바깥쪽으로는 원형 웅성을 지음
홍예 위에는 오성지를 만들어서 다섯 개의 구멍을 갖춘 큰 물통으로
적의 성문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함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http://www.swcf.or.kr/?p=59>

<관람 시간>

- 하절기 (3월~10월) 09:00~18:00
- 동절기 (11월~2월) 09:00~17:00
- ※ 입장 마감은 관람 시간 30분 전
- ※ 수원화성은 '개방형'이며, 관람 시간 후엔 무료로 관람 가능

<문화관광 해설>

- 화성행궁, 팔달문, 서장대, 장안문, 화서문, 연무대, 화홍문에 있는
안내소에서 현장 신청
- 4인 이상 신청 가능
 - 이용 시간 10:00~17:00
 - 홈페이지 <http://www.swcf.or.kr/?p=70>